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

이민경

진보적인 교육학자 18인이 공동집필한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은 “한국교육의 희망찾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이 부제를 조금 뒤집어 읽자면, 한국교육은 현재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교육혁명을 통해 한국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저자들의 의지와 비전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희망없는 교육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는 비단 한국사회의 현상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1970년대에 이반 일리히(Ivan Illich)는 ‘학교없는 사회’를 주창하며 근대 학교교육의 폐해를 주창해 왔다. 학교교육은 더 이상 인류에게 희망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소외 등을 심화시키거나 혹은 정당화하는 구실만 할 뿐이라고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근대인의 역사는 “희망이 쇠퇴하고 기대가 증대해 가는 역사”일 뿐이라고 일갈하는 이면에는 이러한 희망없는 교육현실에 대한 그의 비판이 담겨져 있다. 그에 의하면, 희망이 자연의 선에 의하여 운용되는 삶의 동력이라면 기대란 인간의 욕망에 의해 계획되고 통제된 결과에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희망이 인류가 잃어버린, 그리하여 회복해야 할 그 무엇이라면

* 대구대학교

기대는 인간의 삶에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그 무엇이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지나면서 탈학교론자들을 비롯한 인류의 지성들은 근대교육의 신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교해체’, ‘교육의 위기와 대응’ 등 비판적 교육담론들을 생산해 왔다. 근대 산업 사회를 이끌어온 동력이었던 국가 주도의 근대적 표준화 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주창하는 이른바 ‘탈근대’ 혹은 ‘후기 근대’ 교육담론이 주요한 화두로 등장한 것도 이와 연관이 깊다. 이러한 교육 혹은 학교에 대한 비판적 진단과 비판적 시각은 학교의 탄생이 지니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매우 씩씩하다.

학교라는 근대교육기관의 탄생은 일부 특권계층에게만 허용되었던 지식과 교육에 대한 권리를 모든 시민에게 접근이 가능하게 했던 혁명적인 제도였다. 귀속적 신분질서를 넘어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공평하게 부여받을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인류에게 심어주며 가파른 성장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교육신화를 만들어 오기도 하였다. 한국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구한말 봉건체제의 몰락이후 서구 근대 교육 도입 이래 이루어져 온 급격한 학력상승과 ‘교육열’로 회자되는 한국인들의 열망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은 더이상 한국사회에서 희망이라는 단어와 연결되기 어려운 영역이 되어버렸다. 여전히 교육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지만 교육이란 단어가 환기하는 이미지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차 있다. 교육이란 부모들에게는 사교육부담이고, 학생들에게는 입시지옥이자 무한경쟁의 장이며, 교사들은 스승으로서 자존감과 역할을 찾기 어려운 무력감의 공간이며, 정책

입안가에는 도무지 해법을 찾기 어려운 가장 골치 아픈 영역이기도 하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학교붕괴 담론이나 가파르게 치닫고 있는 사교육 경쟁, 그리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학교폭력 등의 문제는 이러한 한국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부모들은 학교를 믿을 수 없고, 교사들은 교실에서 자기 존재감을 갖기 힘들며, 아이들은 이 틈에서 마음 붙일 곳이 없어 학교에서 대충 시간을 때우거나 왕따와 폭력을 통해 자신들의 분노와 무력감, 불안을 표출하기도 한다.

교육혁명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하는 저자들의 노력도 이러한 한국교육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 저자들이 진단하는 한국교육의 희망없음은 새로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내용의 낙후성에서부터 학교 붕괴와 실업문제, 관료적인 학교문화로 대표되는 구조적 문제,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부모 교육열, 교육복지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의 미덕은 그동안 무수히 회자되어 왔던 교육문제를 단순히 원론적인 문제제기와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혁신학교의 철학과 제반 구조적 특성’을 개괄하며 새로운 학교모델을 제시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국가교육과정 혁신의 방향과 전략’을 10대 과제로 제시하기도 하고, 대학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평생교육네트워크’, ‘교육복지 실천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저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교육혁명의 기본 요건은 교육의 핵심적 가치와 목표를 재평가하고 주변으로 밀려난 교육적 요구

를 더욱 포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과 성장 그리고 자본 중심의 사회를 넘어 새로운 사회를 향한 교육혁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을 통해 순응보다는 창의성, 성과보다는 과정, 차별보다는 지원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혁명을 위해 저자들이 제안하는 교육문제 진단과 해결은 크게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개혁의 한계와 새로운 지향’은 현재 공교육의 문제점을 거시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을 비교적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바람직한 공교육체제의 구축은 그 공통적인 화두이다.

둘째, ‘우리교육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교육개혁 사례와 과제를 모색하고 있는 장이다. 한국사회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교육개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혁신학교’ 모델에서부터 대학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안’까지 구체적인 사례와 대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셋째, ‘보편적 교육복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근대 학교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근대공교육은 귀속적인 신분질서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교육적 기회의 제공에 의한 사회평등의 실현이 그 주요한 사회적 기능이였다. 그러나 학교교육을 통한 계층 재생산은 이러한 학교교육의 기능에 대한 믿음을 정면으로 배반하게 된다. 학교교육은 계층간 교육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이 장은 교육복지를 통해 학교교육이 모두에게 삶의 기회이자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는 평등의 기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이 특정계층이 아닌 모두의 희망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교육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최근 뜨거운 논쟁이 되어 왔던 학생인권조례안에서 야기된 학생인권과 교권의 문제를 비롯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신자유적인 질서를 넘어서는 시민주체화를 지향하는 평생교육 모델을 포괄하여 다룸으로써 모두에게 열린 수평적 공동체로서의 학교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과 민주적 자치역량 신장의 강조, 학생중심의 학교운영이 아닌 행정 편의주의 관료주의 권위주의에 입각한 학교문화에 대한 비판은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저자들의 관점이 배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의 거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면서 현실 진단과 사례,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건강한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교육의 기능의 복원을 주창하고 있다. 구체적인 한국의 현실에 기반한 문제제기와 교육정책적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자들의 주장은 대부분 많은 공감과 설득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지닌 이러한 다양한 장점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먼저, 분야별로 교육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려고 하다보니 교육혁명을 위한 요건과 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교육혁명의 기본방향을 민주주의, 인권, 복지의 가치에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졌다고 정리하고 있지만 교육혁명의 방향성이 매우 모호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책을 읽고 난 후 교육혁명을 위한 몇 가지 그림이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것은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교육이 희망없는 이유를 몇 가지로 압축하고 이에 대한 과제와 대안을 보다 집중적으로 탐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다음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의 저술로 함께 책을 엮을 경우, 그 장점만큼 단점도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이 책도 예외는 아니다. 전체를 엮는 통찰적 시선의 아쉬움이 그것이다. 각 영역별로 전문적인 진단과 과제제시가 지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 분야를 포괄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 전체를 관통하는 가치 등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같은 주제의 중복에 의한 내용의 반복도 이러한 다양한 저자들 참여의 이면으로 읽을 수 있다(예를 들면, 교권의 기초- 민주적 학교 만들기 / 교육복지- 무상 교육-재정 등의 중복/ 학부모주의를 넘어서 -입시산업 학교교육체제 등등).

마지막으로, 최근의 중요한 교육이슈인 지구화와 이주, 국제화로 인한 교육의 변화와 이를 위한 한국교육 시스템의 전환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주적인 학교운영, 포용적이고 열린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지구화와 교육의 과제를 자연스럽게 포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문화사회의 진전과 이를 위한 교육적 과제는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모두에게 열린 민주적인 학교문화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

문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생존 경쟁’과 ‘불안’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 안전망이 없어진 사회를 살아가면서 무한경쟁에 내몰리면서 우리 모두는 정신적 황무지를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정신적 황무지 상태란 삶에 대한 희망도 에너지도 신뢰도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는 정신적 빈곤 상태를 의미한다.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내일의 삶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은 가장 중요한 삶의 명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부모들의 경험이 자녀들에게 안정된 삶을 물려주려는 욕구로 발전되면서 한국사회의 교육열은 사적인 방식으로만 재편되어 가고 있고, 모두에게 교육은 희망이 아닌 안전망을 위한 도구로 전략해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한국교육풍경이다.

강준만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한국교육의 현실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적 과제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냉소주의 극복이 가장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냉소주의는 최악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공적인 영역엔 불신을 보내되 사적인 영역에는 신뢰할 수 있는 연고를 키우고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거는 것을 넘어 함께 우리교육의 희망을 찾아나서는 공동체적 삶을 복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편, 교육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계량화, 숫자의 시대인 신자유주의 시대에 양적 지표가 눈에 보이는 성과이자 삶을 평가하는 선명한 잣대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적 진실과도 연관이 있다. 부르디외가 ‘구별짓기’ 전략으로서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서 비판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느끼게 해주는 명품 소비처럼 되어버린 지금의 교육문화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류의 생존여부는 희망을 사회적 힘으로 재발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이반 일리히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교육 풍경과 우울하게 오버랩된다. 희망 대신 기대와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교육 현실은 우리의 익숙한 일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고 우리 모두는 분주히 앞만 보고 질주를 계속할 뿐, 무엇을 위해 그 길을 달려가는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이 숨가쁜 경주의 레일 위에는 ‘남들 만큼’ 혹은 “남들보다 조금 더” 라는 절대적이고 막강한 기준 뜻말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한국 교육현실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물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이 책의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교육혁명이 교육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런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경쟁보다는 협력이 차별보다는 지원이 우선시되는 교육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는 정책입안가들이나 교육전문가들의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이기도 하다. 이 책이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모두가 제자리에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